



2013 update  
“**THE LIST**”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납북된  
탈북자와 인권운동가 명단



우리는 중국정부가  
탈북난민 복송을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 들어가는 글

이 명단은 디펜스 포럼 재단이 2002년부터 모으기 시작한 중국 당국에 의해 납치된 탈북난민과 인권운동가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중국당국이 서명한 국제난민협약을 위반한 결과로 중국공안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 협정과 그 1969년 협약의 가맹국으로서 탈북자들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 의해 복송된 모든 탈북자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게되고 한번 이상 기독교인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은 공개처형에 처해질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탈북자들을 경제적 이민자로 규정, 북한과의 합의 아래 이들을 체포하여 강제 복송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허가없이 국가를 떠나는 국민을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국제법상 망명신청자(asylum seeker)로서의 자격요건이 성립됩니다. 사실 유엔 특별 보좌관이 탈북 난민들을 현지 난민들로 (refugees sur place)지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탈북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복송될 경우 박해를 받게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에 더해 중국정부는 또한 유엔난민기구가 북한에 들어가는것을 거부하고 탈북난민들을 돕는 사람들을 벌금형과 감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들까지도 탈북난민들을 돕고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적인 복송정책과 유엔난민기구와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굶주림과 박해를 피해 도망친 탈북난민들을 더 피해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70~90%의 여성 탈북자들이 성적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어 중국남성들의 “아내”로 팔리고 있으며 매춘과 인터넷 포르노 산업에 뛰어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중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것을 두려워한 중국이 난민문제를 끝내려는 시도를 함에 따라 강제복송율이 높아졌다고 추정됩니다. 그당시 매주 평균 100~200명의 탈북자들이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중국 당국에 의해 복송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죽음 이후에 탈북자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서 고문과 수감을 당하며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사형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북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김정은은 김정일 애도기간 100일 중 탈북한것이 발각되면 그 가족 3대를 멸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늘어난 국경 보안과 감시는 남한이나 다른 나라로 자유를 찾아 떠나는 탈북자 수를 급격히 감소시켰습니다.

중국의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불법적인 복송정책 때문에 수천명의 탈북자들이 체포되어 고문, 감금, 사형에 처해지는 북한에 강제 복송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그동안 보고된 사건들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 “THE LIST”가 정리되기까지

이 명단은 수잔 솔티의 미국 안보포럼재단 (Defense Forum Foundation)과 7 개의 시민단체에 의해 수집 및 정리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서울의 피랍탈북인권연대, the Japan-based 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난민 계획(Refugee Plan)의 아브라함 리, 인사이트 프로덕션 (Incite Productions)의 제임스 버터워쓰 와 리사 슬리스, 그리고 스티브김과 필립 벅을 포함한 탈북자를 구출하다가 중국감옥에 갇힌 미국 시민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PSCORE), 북한인권 국제연대의 신우남과 문국한,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과 직원, 피터 정과 북한정의연대, 재미탈북민연대, 그 외 탈북자를 비공식 루트로 구출하는데 관련된 분들께서 제공한 정보를 지난 몇년간 북한 자유연합 회원 기관들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명단은 북한자유연합에 의해 매년 워싱턴 디씨의 중국대사관과 세계각국의 항의집회에서 큰소리로 낭독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하원의 국제관계위원회, 미국 의회의 중국 위원회와 (CECC),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에 증언의 일부로서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 명단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주로 기독교사들인 인권 운동가들의 피살과 의문사인데 그 이유는 중국정부가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탈북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막으면서 북한 정보원들과 암살자들이 중국을 북한 탈북자들을 구출하려고 돕는 사람들을 중국에서 죽이기 위해 중국에 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 “THE LIST”의 목적

이 명단이 작성된 목적은 (1) 이 명단에 기재된 모든 사람의 운명에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2) 항상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의 명단을 우리 앞에 두어 그들이 감옥에 갇혀있고 고통받고 있음을 잊지 않으며, (3) 인권단체들이 이 명단을 사용하여 중국이나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의 석방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기억해주세요:

**이명단**은 강제로  
**복송**된 수많은 탈북자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 명단:

참고: 이명단에 첨부된 나이는 사건당시의 나이입니다.

### 2013년 11월 15일 체포

13명의 탈북자들이 쿤밍에서 중국국경을 넘어 다른나라로 가는 버스를 타려던 중에 중국공안에 체포됨.

### 2013년 11월 7일 체포와 복송

5명의 탈북자들이 북경 근처로 이동하던중 중국공안에 체포됨. 이들은 모두 한국정착을 위해 천진에서부터 남쪽으로 가던 중이었음.

### 2013년 11월 2일 체포와 복송

10명의 탈북자들이 엔지와 단둥에서 체포됨. 이들은 량강도 혜산과 함경북도 칠성의 세관을 통해 북한 국경 수비대에 넘겨짐.

### 2013년 11월 2일 체포와 복송

선양에서 숨어있던 7명의 탈북자들이 체포되어 복송됨.

### 2013년 5월 28일 복송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2013년 5월 28일에 북한으로 복송됨. 그들은 한국정착을 위해 라오스에 성공적으로 들어갔지만 북한의 공작을 받은 중국과 라오스 정부가 이 9명의 청소년들을 중국 민간 항공기에 태워 중국으로 보낸 후 북한으로 보내짐.



문철 23살 (한국나이 )

정광영 20살

백영원 20살

류광혁 19살

박광혁 18살

이광혁 18살

류철룡 16살

장국화 16살

노애지 15살

### 2013년 4월 체포와 복송

남한으로 탈출하려던 8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선양에서 체포되어 복송됨.

### 2012년 7월 복송된 후 2013년 2월 고문으로 사망

회령 출신의 김은혜 (여, 26)와 박은옥 (여, 40)은 2012년 7월 중국공안에 의해 중국 선양에서 체포된 후 복송됨. 감옥에 갇힌지 2개월후 박은옥은 북한 보위부에 의해 머리를 심하게 맞고 살가망이 없어 집으로 보내진 후 사망. 김은혜는 8개월후 고문으로 사망.

### 2012년 여름 체포: 선교사와 북한 탈북자의 의문사

한국선교사 김도연 (36)과 양강도 신파출신의 탈북자 김현숙(28 추정). 장춘 고속도로에서 5명의 탈북자들을 구출하려는 과정에서 체포됨. 이들이 체포되어 장춘시의 교도소에서 고문을 받는동안 5명의 탈북자들은 즉시 복송된것으로 추정됨. 심한고문에도 김도연과 김현숙은 탈북자 구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 2012년 8월 김도연의 아버지는 아들과 김현숙이 자살했다며 시체를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음.

### 2012년 5월 의문사

한국 선교사 강호빈 (58). 교회를 가던 중 연길 근처 연변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사망. 몇년전에 (북한 암살자들에 의해 흔히 사용되는) 독침에 의한 암살 시도로 부터 도망친 적이 있음.

### 2012년 3월 북송

중국은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2월에 31 명의 북한 탈북자들을 북송함. 이들은 김정일 애도기간중 북한을 탈출했다는 이유로 학대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음. 이 탈북자들은 세계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북한을 탈출했고 중국의 각 다른 지역에서 붙잡힘.

### 2012년 3월 8일 북송

중국에서 붙잡힌 대략 48 명의 북한 탈북자들중에서 10 명은 선양에서 붙잡혀서 단둥 국경도시에서 이송된 후 북한으로 북송됨. 25 명의 탈북자들은 선양의 수용소에 아직 감금됨. 10 명의 탈북자들은 랴오닝성의 안산에 있는 군부대에 감금되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길림성 바이산 군부대에 감금됨.

### 2012년 2월 20일 북송

3 명의 탈북자들이 2월 17일 길림성에서 장춘시로 기차여행중 붙잡히고 도문시로 옮겨져 2월 20일 북한으로 북송됨. 이들중 3명은 20대 후반의 여성들이었음.

### 2012년 2월 체포

중국의 다른지역에서 붙잡힌 34 명의 북한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북송됨. 이중 19명은 2월 8일에, 5명은 2월 12일 (길림성 장춘시에서), 3명은 2월 13일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4명은 2월 17일 (허난성의 정조시에서), 그리고 3명은 2월 18일 (산둥성의 청도시에서) 체포됨.

### 2012년 2월 20일 체포

중국의 정조시에서 4 명의 탈북자들이 체포됨.

### 2012년 2월 8일 체포

중국 북동쪽의 선양에서 9 명의 북한 탈북자들이 체포되었고 4명은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지역에서 체포됨.

### 2012년 2월 8일 체포

선양의 머스터미널에서 10 명의 북한 탈북자들이 붙잡힘. 이들중 14 개월된 아기와 16 살된 소년과 소녀, 그리고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딸을 둔 70 세된 노인이 포함됨. 이중 여섯명은 한국에 이미 정착을 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었음.

### 2011년 12월 체포

중국과 국경인 헤산시의 고아원에 있는 30 명의 고아들 중 20 명이 북한 군인에 체포됨.

### 2011년 8월 피살

김창완 (46) 한국 선교사는 단둥에 두부, 국수, 빵, 분유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회사와 공장을 설립함. 단둥에 있는 탈북자를 돕기위해 가던중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이 발견됨.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후 사망. 병원관계자들은 그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함. 그의 아내 김하영이 수사를 요구함. 부검후 중국 정부는 그의 몸에서 독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나 그의 아내는 혈액 샘플을 한국 당국에 넘김. 조사 결과 그의 몸에 있었던 독의 양은 그를 즉사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밝혀짐. 그의 일이 기독교 믿음에 의한 동기였기에 그는 북한 당국의 요주의 인물로 지명되어있었고 암살 대상자였음.

### 2011년 5월 체포

강화옥. 청진 인민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북송됨.

### 2010년 12월

제 삼국으로 떠나려던 8 인이 길림성에서 체포되어 6 인은 강제북송되고 2 인은 뇌물을 주고 풀려남. 북송된 6 인중 1 인은 남한행에 성공하여 2011년 9월 하나원 졸업 예정

### 2010년 12월 14일 압록강 근처에서 총살 및 체포

신원미상 5인 압록강 도강 중 총격에 의해 사망. 2인 총상 후 북한 군인에 의해 북한으로 끌려감.

### 2010년 12월 6일 체포

중국 연변주 왕청에서 출발했던 신원미상 6인 탈북자 연길역 앞에서 체포됨.

2010년 8월 14일 북송

5세 여아, 70세 남, 20~30대 사이의 남성 4인 여성 9인

2010년 7월 29일 체포, 강제 북송 뒤 공개처형  
신의주 출신을 포함한 7인 단동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 한달 내에 북송된 후 공개처형됨. 현재 이들 중 남한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1인이 단동에 수감되어 있음.

2010년 6월 3일 단동에서 체포 후 강제북송  
50대와 60대 남성 2인, 20대와 30대 여성 8인. 단동에서 은신하며 남한행을 기다리던 중 7월 29일 체포. 5세와 6세 아이 3명은 석방, 10인 성인은 북송

2010년 2월 19일 강제북송 후 강제수용소 수감  
2009년 8월 중국에서 체포되어 수감중이던 장상운(한국전쟁 포로, 남, 84) 강제북송 후 강제수용소에 수감됨. 중국 국가안전부는 탈북자 북송을 중용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 관료로부터 정씨가 북송 직후 수용소로 보내졌음을 알게되었다. 탈북 시도 이전, 정씨는 한국 전쟁후 50년동안 북한에 살며 광부로 일하도록 강요받아왔다.

중국과 북한 국경 근처에서 2010년 2월 19일 체포  
자유북한방송의 통신원이었던 이씨가 북한의 비밀 요원에 의해 2월 19일 북중 국경 근처에서 체포됨.

2009년 10월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북송됨  
어린이를 포함한 42인이 10월에 북송됨. 20인은 온성 보위부에서 심문한 것으로 알려짐.

2009년 10월 12인 체포 10인 북송  
중국 운남성에 있던 12인이 한국과 미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중국을 탈출하려던 중 조선족의 밀고로 중국당국에 의해 전원 체포됨. 선교회에서 큰돈을 보내 두명이 석방되었으나 나머지 10인은 북송됨.

2009년 9월 말 국군포로가족 북송

9월 중순 선양 영사관에 들어갔던 국군포로 가족 2인이 북송됨. 그들은 “시설 부족”으로 영사관 밖에 머무르고 있던 중 체포되었음.

2009년 9월 중국-베트남 국경 근처에서 체포  
2009년 7월 탈북한 함경북도 청진 출신 나영효(남, 50). 그의 아내는 중국에서 남한으로 가려던 도중에 실종되었음.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 전해손(여성, 37). 2002년 인신매매의 희생자가된 그녀는 2005년 강제북송 당한뒤 2008년 9월 재탈북하여 인신매매로 맺어진 남편에게서 난 6세 아들과 함께 중국을 전전하고 있다.  
이청국,전씨의 아들. 2003년 2월 9일생.  
전중화(여성, 43). 무산 출생으로 2004년 3월 17일에 중국으로 탈북하였다. 인신매매를 경험하였다.

2009년 5월에 탈북한 원산출신 김은녀(여, 50).

2009년 9월에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북송후 사형당함.  
남한국적을 취득한 3인의 여성 탈북자가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북송된 후 공개처형됨.

2008년 중국 지린에서 체포됨  
전쟁포로 G씨의 친척 최영애(여, 24), 윤은실(여,24)



2008년 9월 툰밍산 영역지역에서 체포  
단동 구류소에 억류된 12명의 탈북자가 2008년 11월에 신의주로 북송될 예정. 최고령자는 48세였으며 아이들도 있었음. 이 그룹의 탈북을 밀고한 북한간첩이 체포된것으로 알려짐.

탈북자와 그를 보호중이던 목사가 함께 2008년 7월 16일 체포됨.  
함경북도 출신 방미화(1972년 4월 21일생, 여)

2008년 4월 21일 쿤밍에서 체포  
 류길화(여, 1966년 11월 25일 무산 출생)  
 리애석(여, 1982년 무산 출생)  
 윤금희(여, 1979년 10월 26일 회령출생)와  
 그녀의 4세 딸  
 손옥주(여, 1991년 7월 27일 셋별 출생)

2008년 3월 30일 베이징 선양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길에 베이징에서 한시간 되는 거리에서  
 체포됨  
 이수경(여, 청진 출생, 87년 10월 5일 출생)  
 김순옥(여, 회령시 출생, 67년 7월 4일 출생)  
 김준식(남, 26, 회령시)  
 김준남(남, 24, 회령시, 김준식의 동생)

2008년 3월 5일 체포 후 선양 국경감시구역소에  
 감금  
 한창국(남, 30세)  
 이종선(여)  
 이궁신(여, 30)  
 이종신(여, 33)

지린 옌지 지역 2007년 10월 24일 체포  
 이상혁(남)과 다른 탈북자들이 중국 국경경찰에  
 의해 체포됨. 이상혁은 북한에서 남한의 친척에게  
 전화를 했다는 죄목으로 수감된바 있으나  
 중국으로 재탈출했던 참이었다.

2007년 10월 9일 베이징에서 체포  
 4명의 탈북자들이 한국 국제학교에서 체포됨. 이  
 사건시 나머지 탈북자의 체포를 막으려하던  
 두명의 한국인 외교관이 중국경찰에 의해 연행됨.

2007년 6월 내몽고에서 체포  
 44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몽고를 통해 남한으로  
 가려다가 체포됨.



2006년 10월 태국에 가족과 함께 숨어있던  
 탈북 아이들이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3인의 전쟁포로의 가족들인 9인이 2006년 10월  
 11일 강제북송됨  
 김용화  
 이정하  
 이정훈외 6인

2006년 강제북송후 공개처형  
 전 인민군 장교였던 손정남 강제북송 후 남한에  
 정착한 동생 정훈을 만나 정보를 제공했다는  
 죄목으로 공개처형됨.



2005년 12월 20일 강제북송됨  
 중국 감옥에서 60일을 보낸 뒤, 김금남(남)  
 강제북송됨. 그는 해산보위부에 수감되어 한번에  
 세시간씩 심문과 고문을 받은 뒤 수용소에  
 보내졌으나 노령과 심각한 동상으로 노동에서  
 제외됨.

2005년 12월 베이징 한국학교에서 체포  
 이춘실은 2005년 11월 30일 다란의 한국학교에  
 진입하려했으나 실패했다. 그래서 그녀는 12월에  
 베이징의 한국학교에 갔지만 중국공안이 그를  
 체포하였다. 남한과 미국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2006년 2월~3월 사이에  
 북송되었다.



2005년 8월 29일에 옌타이의 한국학교에서 체포  
 2005년 9월 29일 두명의 남성과 5명의 여성이  
 기념식동안 학교에 들어갔다 체포되었다. 이들은  
 남한정부의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송되었다.

지린성 룡징시에서 2005년 3월 체포

2005년 8월에 몽고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  
김송숙(여, 27). 그녀의 여동생은 남한행에 성공했다.

2005년 7월 27일 일본 국제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텐진 일본인 거주지역에 진입하다가 체포

김영희 (1962년 1월 28일생)  
배웅 (장남, 1985년 11월 4일생)  
배웅 (차남, 1995년 3월 1일생)  
강송희 (1979년 3월 1일생)  
51세 여성 (이름 미상)

위 명단 중 텐진에 구류되어있는 강송희를 제외한 전원 북송된 것으로 알려짐. 강송희는 이미 두차례 탈북했으므로 북송될 경우 고문과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임.

2005년 5월 25일 장춘에서 체포  
2인의 북한여성

2005년 5월 22일 장춘시 예배중 체포  
26세 탈북자 남성과 3인의 탈북자 여성 체포

윤요한 목사가 체포된 2005년 5월 9일 함께 체포. 윤목사는 이들을 몽고에 데려가려고 하던 중이었다.

최상목 (남, 50) 한송화(여, 43) 김평용(남, 50)  
박정란 (여, 45) 조영실(여, 43) 김명옥(여, 40)  
김형숙(남, 21) 한금숙(여, 30) 최순금(여, 60)

2005년 5월 체포

김령철(남, 26, 함경남도 함흥시)  
김경숙(여, 25, 함경북도 온성)  
김금성(5세, 중국 칭다오 출생)  
김모란(여, 22세, 함경북도 청진시 출생)  
남성 1인 (이름과 나이 미상)  
6~9인의 최씨 가족 (남성 1인, 여성 2인, 5세 어린이, 이름 미상)  
김성희 (여, 26, 함경도 무산)  
김형희 (여, 15세, 북한 부산 출신)  
성희 엄마로 알려진 여성 (50, 함경북도 무산 출신)  
남성 2인 (이름 미상, 엔지로부터 따로 여행옴)  
여성 2인 (이름 미상, 엔지로부터 따로 여행옴)



강건 (강성일, 남, 1969, 평양) 은 남한시민권을 얻었으나 북한내부정보를 얻기 위해 중국을 여행하던 중이었다. 그는 악명높은 요덕수용소의 사진을 숨겨나오려고 시도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용징시에서 실종되었으며 중국에 있던 북한의 요원들에게 납치되어 평양으로 압송되었다가 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한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외부에 알리려는 그의 활동때문에 고문과 사형의 위험에 처해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월 북송

한만택 (전쟁포로, 73). 그는 2005년 12월 27일 탈북했으나 그 다음날 체포되었다.



2001년~2005년 사이에 체포됨. 윤요한 목사님의 보호아래 은신중이었음.

김현덕 (남, 55)  
한영애(여, 49)  
김해영(여, 18)  
김철민 (남, 16)  
김철주(남, 14)  
한은희(여, 29)  
한성희(여, 26)

2004년 11월 초 중국 단둥의 병원에서 체포

이주임(여, 73)– 한국전쟁시기 북한으로 강제납치된 한국인이었던 이씨는 탈북후 병원에서 치료중 북한의 보안요원에 의해 체포되었다.



2004년 10월 26일 북송

10월 26일 한국행을 모색하며 중국 베이징 외곽 주택가에 은신해 있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62명의 탈북자

- 리선희(34, 은덕), ○영금(39, 청진),
- 양화(33,혜산), ○용희(39, 김책),
- 인옥(36, 회령), 박경숙(43, 함흥),
- 김현화(30, 함흥), 김미화(36, 함흥),
- 박영순(35, 정평), ○은희(19, 함흥),
- 경화(34, 어량), 정대철(77, 무산),
- 이동식(17, 무산),
- 이정식(14, 무산),
- 이일심(13, 무산),
- 안영구(40, 청진),
- 박상실(39, 청진),
- 손옥주(15, 청진),
- 박영숙(31, 혜산),
- 김국철(22, 무산),
- 정경숙(31, 회령),
- 김은주(25, 평양),
- 김 철(23, 청진),
- 박영옥(26, 회령),
- 옥단(13, 온성),
- 최성옥(34, 온성),
- 경옥(35, 단천),
- 향옥(32, 단천),
- 류명화,
- 김경숙,
- 상옥,
- 김성철,
- 이상일,
- 경일,
- 영옥,
- 철금,
- 허명일,
- 춘녀,
- 김순옥,
- 김순복,
- 김경옥,
- 최금옥(49, 새별), 남명성(18, 새별), 이정빈(38, 온성), 나영주(17, 홍원), 한경희(33, 청진),
- 리평일(23, 회령), 강명성(23), 전한식(5, 청진),
- 김은실(12, 무산), 홍박숙(28, 청진), 전정옥(74, 함흥), 박정실(40, 함흥)

외 8인

2004년 10월 25일 베이징에서 체포됨

탈북후 남한시민권을 얻고 다른 탈북자들의 남한행을 돕던 2인의 인권운동가



이수철 (남, 함경북도 1963년, 사진 오른쪽). 재판없이 2년간 수감되었다가 2006년에 2년형을 받았다.

김홍균 (남, 1965년생, 사진 왼쪽) 재판없이 2년간 수감후 2006년에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두개의 은신처에 숨어있던 60여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새벽 3시에 긴급체포되었다. 이 중에는 11세의 어린이와 70세의 노인도 있었다. 체포된 탈북자 일부 명단.

김순옥 (여, 25, 은덕 출신) 7년 전쯤 탈북하여 2세와 5세 아이를 가진 탈북자

김순복 (여, 33, 은덕 출신) 0, 7년전쯤 탈북하여 3세 아이를 둔.

김경옥 (27세, 은덕출신) 약 7년전 탈북하여 중국에 거주.

이들 대부분이 2004년 11월 9일에 에 북송된 것으로 알려짐.

2004년 10월의 선양 사건 직후 체포됨

홍진희(남, 1969년 함?) 남한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로서 중국의 탈북자들을 구조하는데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긴급체포를 간신히 모면하였으나 선양에서 결국 체포되었다. 그는 2년간 재판없이 수감되어 있다가 2006년 7년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10월 25일 체포

한국영사관에 진입을 시도하던 15인의 탈북자들 체포

2004년 9월 27일 체포

9인의 탈북자 여성과 아이들이 상해 미국인학교에서 체포됨. 두 아이들은 남한관리에 의해 석방되었으나 7인의 여성과 10대 청소년들은 구류됨.

2004년 8월 8일 지린성 헤룽(?)에서 체포

진경숙(여, 1979년 6월 24일생) 2002년 시민권을 얻은 탈북자, 남편과함께 북한의 아편재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중국을 여행하던 중 체포됨. 남편은 탈출에 성공했으나 진씨는 강제북송됨.

옌지에서 2004년 7월 체포

오영선(남, 1965년) 남한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로서 창베이 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위해 중국방문 중이었다. 중국에서 그는 탈북자들을 만나 남한행을 도우려했다. 후에 그가 창베이산과 백두산을 촬영하던중 체포되어 2005년에 재판을 받아 탈북자의 남한행을 도왔다는 죄목으로 8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난징에서 2004년 6월 5일~10일 사이에

체포됨

윤향심(여, 1956년 1월 12일생)은 탈북하여 남한시민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위의 탈북과 베트남행을 돕던 중 체포되어 난징시 난지감옥에 수감되어있다.

2004년 2월 15일 광시성 난징에서 체포

강은희(25), 박일만(38), 다른 5인의 탈북자들은 중국당국에 의해 체포 후 2004년 3월 5일 투만의 지린성 안산 난민캠프에 보내짐. 자유를 얻어 남한행을 하기위한 단식투쟁을 하였지만 2004년 3월 12일 북송되었다. 그들은 온성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2003년 12월 23일 베이징으로 이동하려던중 체포

최송죽(류명호와 류성호의 어머니. 2001년 9월 18일과 19일의 명단 참고)

2003년 12월 13일 광시성에서 타카유키 노구치와 함께 체포

최용(남, 60)과 신정미(여, 46). 일본대생 탈북자들로서 노구치는 이들을 일본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하였다.

2003년 12월 5일 난닝시 체포

중국당국은 광시성 난닝시에서 36인의 탈북자를 체포함.

2003년 9월 26일 광동성에서 체포

다음 탈북자들은 뉴욕출신 사업가인 스티브 김이 구조하려던 때에 체포되었다. 김씨는 이들 탈북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감옥에서 4년간 수감되었고 또다른 두 중국여성은 2년간 수감되었다.

최금춘(남, 19)

박영철(남, 19)

박항철(남, 52)

정성희(여, 12)

박경숙(여, 38, 정성희의 모친)

정화금(여, 36)

김일화(야, 36)

송은희(여, 40)

박춘희(여, 40)

2003년 윈난성에서 체포. 이들 중 9인은 라오스 국경을 넘으려던 중 라오스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중국으로 송환되었으며 다시 북송되었다. 그러나 결국 2명은 윤희한 목사님의 도움으로 남한으로 갈수 있었다.



- 윤중옥 (여, 37)
- 윤광철(남, 34)
- 박 00 (이름 미상, 여, 31)
- 이소봉(여, 54)
- 고금숙(여, 34)
- 고혜숙(여, 32)
- 고이송(여, 27)
- 고송희(여, 24)
- 오인선(여, 20)
- 고종희(여, 40)
- 오인철(남, 15)
- 오종화(여, 34)
- 김소희(여, 27)
- 손미향(여, 8)
- 정혜용(여, 26)
- 곽현철(남, 21)
- 김송진(남, 20)
- 장철(남, 19)
- 동송실(남, 19)
- 김미나(여, 16)
- 김은혜(여, 17)
- 유송(여, 15)

2003년 9월 5일 광저우에서 체포  
북한의 생물학무기 전문가인 이채우박사가 광저우의 호주 영사관으로 진입하려다가 체포됨. 이박사의 아내와 자녀는 그가 체포될 때 빠져나올수 있었다.

2003년 8월 18일 중국과 베트남 국경 근처 평양에서 체포됨

- 최순화(여, 56)
- 송정화(여, 22)
- 이광림(남, 23)
- 한광숙(남, 14)
- 한은별(여, 12)
- 문광혁(남, 22)

2003년 8월 7일 상해에서 후미야키 야마다와 함께 체포. 후미야키는 후에 석방됨.

- 장경철(남, 1969년 9월 22일 출생)
- 장경수(남, 1972년 3월 21일 출생)
- 장미화(1969년 1월 15일 출생)
- 두 형제와 그들의 여사촌인 이들은 북송되었고 두형제는 함경북도 국가안전부에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2003년 8월 1일 한국대사관으로 가던 중 베이징 기차역에서 체포됨.

- 이 탈북자들은 정목사와 박목사의 구조를 받던 중이었으나 두 목사는 이들을 도왔다는 죄목으로 1년 반동안의 감옥생활을 했고 6명의 탈북자는 6개월후 전원 북송되었다.
- 이씨 부부
- 박씨,
- 장씨부부와 그 딸

2003년 7월 27일 베이징에서 체포

다음 4인은 옌지시에서 두만-베이징 기차로 도착한 날 베이징의 식당 밖에서 체포되었다.

- 이길운(남, 64, 온성의 석탄광산 관리자)
- 한선복(여, 60, 이길운의 부인. 전 고교교사)
- 이송민(남, 31, 이길운 한선복 부부의 아들)
- 강명옥(여, 35, 청진시)

2003년 7월 27일 중국 칭다오에서 체포  
4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8명의 탈북자

중국 창바이에서 2003년 4월에 체포된  
김철수(1965년생) 지만길(1971년생). 둘다  
양강도 해산 출신으로 남한 국적 취득. 김씨의  
부인에과 지씨의 형제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어린이를 포함한 그들의 가족의 탈북을 돕기위해  
중국을 여행중이었으나 또다른 탈북자에 의해  
납치되어 북송되었다.

2003년 4월 중국에서 체포  
신혼이며 남한국적을 취득한 김철훈(황해도지역  
출신, 1970년생)과 신성심(1981년 함경북도)  
신혼여행으로 중국을 방문중 북한으로 납치되었다.

2003년 1월 18일에 산둥성 옌타이 시에서 체포됨  
“보트 피플 사건”

박용철(남) 북한국적. 2003년 5월 22일 2년형  
선고 5000 인민폐의 벌금. 2004년 10월에 강제  
북송된 것으로 믿어짐.

박용호(중국어이름"Piao LONGGAO") (남), 조선족.  
2003년 5월 22일에 3년형과 10000 인민폐의  
벌금 선고

이유선(여, 1982년 평안북도 9월 21일 출생)  
김선희(여, 함경북도 1961년 9월 1일)  
피옥주(여, 함경북도 1988년 2월 11일)  
김명철(남, 함경북도 1965년 1월 28일)

주훈국(남, 함경북도 길주군 용북구 1965년 12월  
29일)

김용호(남, 함경북도 회령시, 옥천동, 1969년  
12월 17일)

김금옥(여, 함경남도 함흥 송천 1960년 3월  
28일)

신영희(여, 함경북도 세표군 1986년 7월 14일)

전향화(여, 함경북도 함흥 송전강 1983년 7월  
10일)

김은금(여, 함경북도 명천군 1931 6월 25일생)

배광명(남, 1986년 1월 1일 함경북도)

박란희(여, 1964 1월 17일생 함경남도  
함경용성구역)

이경수(남, 1968년 2월 18일생, 해산시)

이철호(남, 1967년 8월 28일생,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

이철남(남, 1969년 4월 26일생,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

장용철(남, 1955년 4월 20일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

2002년 11월 13일 베트남/중국 국경에서 체포

17명의 탈북자가 베트남 국경 감시원에 의해  
체포되어 중국 당국에 넘겨짐. 이들은 중국 광시성  
난닝시 핑샹에서 구금되었다.

김옥련(여, 38)

김명희(여, 33)

최길숙(여, 62)

김금단(여, 67)

화정(28)

이성열(남, 20)

김철호(남, 44)

이화전(남, 35)

박윤상(남, 54)

조경숙(여, 29)

조성숙(26)

곽명녀(남, 35)

윤서영(여, 24)

전장섭(남, 42)

황태욱(남, 9)

오송월(4세 어린이)

이대호(7개월 아기)

# 북송된 탈북자들의 운명은?

## 북한 형법 62 조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 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북한에 돌아갈 경우 고문이나 죽음을 당하는 강제수용소가  
존재함이 밝혀졌다. 이곳에선 중국에서 임신한 탈북 여성들이 낙태를 당하거나 중국아버지의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 살해를 당하게 된다.

남양출신의 탈북자는 북한정부가 탈북을 막기위해 3 명의 북송된 탈북자들을 공개처형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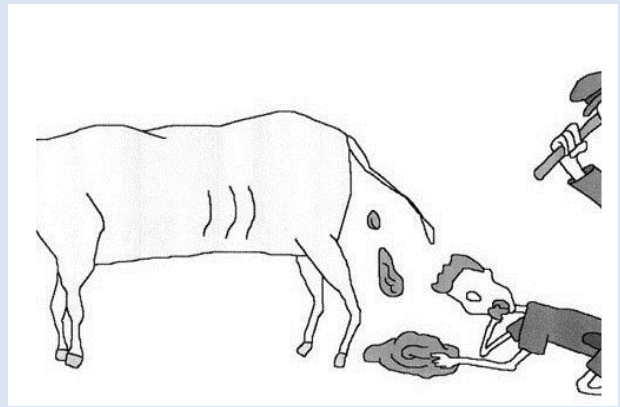


임산부 배 위에 놓인 날판지로 두명의 남자가 올라가서 강제로 출산시키는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 간수가 총으로 협박하자 어쩔 수 없이 임신부의 배 위에 올라간 남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소의 똥에 섞인 낱알을 주워 먹었던 북한 주민을 채찍질하려던 간수가 그를 물구나무 세운 후 배를 발로 차서 토하게 하고 있다.



임산부등 몸이 약한 수감자를 탁자위에 올라서게 한다음 간수들이 부르는 시각의 시계모양대로 다리와 팔모양을 만든채 서있게 만든다.



배고픈 수감자들이 소똥 속의 곡식 낱알이라도 주워먹으려 하고 있다.

2002년 10월 31일 베이징 독일 학교

주성희 (여, 41, 함경북도)  
한미경(여, 17, 주성희의 딸)  
이선희(여, 39, 함경북도)  
김옥별(여, 14, 이선희의 딸)  
김광수(남, 16, 이선희의 아들)

2002년 10월 30일 다란 체포

김군남(남)

2002년 베이징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2002년 9월에 체포됨

한송화(여, 45)  
조성희(16, 한송화의 딸)  
조현희(한송화의 딸)  
김연희(여, 31)  
조일현(김연희의 딸, 10개월)  
최진희(여, 28)  
정권(남, 28)  
조영호(남, 20)

2002년 8월 31일 몽고 국경 근처에서 체포됨

윤금실(여)

2002년 8월 26일 베이징의 중국 외교부에서 체포  
다음은 중국 외교부에서 망명자 신청을 하려다가 체포된 7명의 탈북자들이다.

김재곤 (남, 1942, 함경남도 고운군)  
김정남(남, 1967년 함경북도 회령시)  
김미영(여, 1970, 평안북도 운산군)  
조송혜(여, 1976년 2월 25일, 함경남도 단춘시)  
안철수(남, 1963년 3월 20일, 함경남도 형남구)  
고대창 (남, 1949년 9월 4일, 평양)  
김홍 (여, 1973년 4월 12일, 평양)



[법적인 난민신청을 신청하기 위해서 중국외교부에 들어가려던 7명중 1인이 “우리에게 자유를”이라는 사인을 들고있다.]

2002년 5월 24일~26일 라오스/버마/중국 국경 근처 운난성에서 체포됨

6인 중 3인의 명단  
이성용 (남, 3, 그의 모친 박선희(여, 31)은 2000년에 남한행에 성공)  
이홍강(남, 48)  
김미화(여, 30)

2002년 5월 20일 지린성 옌지에서 체포됨  
김경일(남, 1976년 1월 17일 출생) 김씨는 장춘 티에비 감옥에서 중국에서 탈북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살고 있다.

2002년 5월 10일 태국행을 시도하다가 체포됨  
김철수(남, 63)와 부인(여, 60), 딸(여, 30)  
최수금(여, 59)  
김명월(여, 45)  
백남길(남, 18)  
박명철(남, 45)  
한영애(여, 45)와 그 남편(남, 47)  
은심(여, 10)과 그 오빠(남, 14)

2002년 4월 12일 중국 옌지에서 체포  
두명의 탈북자가 최봉일 목사와 함께 체포됨.  
최목사는 이들을 도우려했다는 죄목으로 9년형을  
받았고 최성일(23)은 다시 탈북하여 남한행에  
성공했다. 신철(24)는 복송됨.

2002년 체포  
백남길(남, 20) 강제복송후 3개월 후 구류소에서  
결핵으로 사망. 어머니와 남동생은 윤요한 목사가  
안전하게 남한으로 데려옴.

2001년 3월 6일 지린성 연길에서 체포  
정순애(여, 46, 1955 2월생) 길수의 모친.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으로 2001년 3월  
13일에 보내짐. 2001년 4월 15일에 북한 감옥에  
수감됨. 가족의 대부분은 남한행에 성공. 길수는  
모친의 이름이 이 명단에 덧붙여지기를 특별히  
요청하면서 이를 통해 그녀가 생존하는데 힘이  
되기를 희망했음.

2001년 12월 29일~30일 사이 몽골 국경에서  
체포됨.

이 탈북자들은 12월 29일과 30일 사이에  
중국~몽골 국경지대의 근처인 내몽골의 북동지역을  
지나가다가 천기원 목사와 함께 체포되었다.  
천목사는 이 일로 8개월을 중국 감옥에서  
복역하였고 이때 체포된 탈북자 중 2인은 미국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행이 허락되었다. 나머지  
탈북자들은 중국 만주리 감옥에 구류중이다.

노명옥(38, 남한국적 정재송과 결혼)  
정윤미(10, 노명옥의 딸)  
정윤철(8, 노명옥의 아들)  
김광일(남, 32)  
김철남(김광일의 아들)  
김지성(남)  
남춘미(김지성의 부인)

2001년 9월 18일~19일 옌지에서 체포  
이 형제들은 창춘 티베이 감옥에서 5년형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류명호(남, 24, 1977년 7월 9일생)  
류성호(남, 22, 1979년 9월 8일생)

2001년 6월 11일 시안의 기독교 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은신처에서 체포된 50명의 탈북자들 중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다음과 같다.

최금철(남, 1958년 12월 10일) 탈북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4년형을 언도받은 후 창춘  
티베이 감옥에서 복역한 뒤 2005년 5월과 6월  
사이에 복송됨.

최철석(남, 28, 함흥 함남) 현재 회령 22호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복역 중.

정용철(남, 42, 함북 온성) 현재 회령 22호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수감 중.

이길수(남, 강원 원산) 현재 회령 22호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중.

이 기간 동안, 탈북자 중 두명의 여성 생존자가  
단둥에서 체포되어 복송된 김주복(남, 26)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탈북 그룹을 인도하였다는  
죄명으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가 인도한 그룹 중  
6명은 요덕수용소 15년형을 언도받았고 17인은  
10년형을 언도받았다.

중국 공안에 의한 달란 “안전소”에서 2000년 9월 16일 체포

한원채(남, 60)과 부인 신금현(여, 58)  
그들의 아들 한신혁은 탈출하여 남한행에 성공.

2000년 1월 17일 중국의 북한안전요원에 의해 체포됨

김동식 목사 (남, 53, 1947년 10월 10일생)  
김목사는 한국국적자이면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남한 당국은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김목사가 북한 스파이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되었음을 확인했다. 그가 고문과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염려되나 우리들은 그의 생존을 희망한다. 그의 부인 영화와 자녀들은 시카고에 살고있다.

1999년 11월 러시아에서 체포. UNHCR에서 난민자격을 받았으나 러시아는 그를 1999년 12월 30일에 중국으로 강제송환하였고 중국은 그를 2000년 1월 12일에 북송했다.  
주의: 이 명단 중 한명은 남한행에 성공했다.

김광호(남, 23)  
장호원(남, 24)  
호영일(남,30)과 부인 방영실(여, 26)  
김운철(남, 20)  
이동명(남, 22)  
(김성일(남, 13)은 미성년자라서 석방됨)

1997년 8월 6일 중국 공안에 의해 라오닝 지안에서 체포됨  
리성남(51)

1997년 2월 4일 상해 국제공항에서 체포  
김은철(남, 35)과 그의 부모(김재원과 아내)는 남한에 살고 있고 아들이 북송되었다고 믿고 있다.

1995년 7월 7일 중국에서 체포됨

남한 국적 안승운 목사는 중국에서 북한요원에게 납치되어 북송되었다. 그는 7월에 북한 텔레비전에 출연하였고 마지막으로 평양에서 목격되었다.

2005년 1월에 실종된 또한명의 용감한 구조활동가 제프리 백

미국 시민권자이자 조지아 거주자로서 2005년 1월 6명의 탈북자를 도와 메콩강을 건너다가 실종되었다. 6명의 탈북자는 남한행에 성공하였으나 백씨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이는 그가 익사하였다고 하고 어떤 이는 미얀마 켄퐁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켄퐁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백씨가 그곳에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의 아내와 가족들은 그의 행방을 찾기위해 애써왔다.



북한에서 고통 속에 있을 분들을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활동합니다



## 예전에 이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지금은 자유가 된 분들의 명단

다음 분들은 한때 강제북송자 명단에 있었으나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분들입니다.

2007 년과 2008 년 북송되었으나 남한행에 성공  
최명신(여)

2007 년에 북송되었으나 남한행에 성공  
송재민(여)

2006 년에 북송되었으나 남한행에 성공  
이유미(여)

1998 년과 2006 년 두차례 북송되었으나 결국  
남한행에 성공  
김선숙(여)

2005 년 북송 뒤 남한행에 성공  
김근남(남)  
박인숙(여)  
안혜영(여)

2004 년과 2005 년 북송되었으나 남한행에 성공  
신향숙(여)

2003, 2004, 2005 년에 북송되었으나 남한행에  
성공  
나덕진(남). 15 일간 심문과 “비둘기 고문”을 당함.

2003 년과 2005 년 북송되었으나 남한행에 성공  
윤분련(여)

2002 년과 2005 년 북송되었으나 남한행에  
성공  
음춘실(여)

2004 년 북송되었으나 남한에서 자유를  
찾음  
서은찬(여)

2003 년 체포되었으나 남한행에 성공  
양용호(남, 1961 년 3 월 30 일 함경북도 무산군)  
양금순(여, 1987 12 월 2 일 함경북도 무산군)  
김영광(남, 20 세)

2003 년 체포 후 일본행 성공  
치바 요미코(으로 알려짐) (여, 1960 년 9 월 23 일  
일본 오사카 이쿠노쿠 테노지 출생)

2003 년 9 월 초 원난성에서 체포되었으나  
2004 년에 탈출하여 윤요한 목사의 도움으로  
남한행 성공.  
김광일(남, 18)  
박금송(남, 18)

2002 년 북송 후 남한행 성공  
이영옥(여)과 그 아들 (14)

2002 년 4 월 12 일 중국 옌지에서 체포  
최성길(여, 23)은 북송된 후 다시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하였음. 그녀와 함께 체포된 최봉일 목사는  
9 년형을 언도받음.

2001 년과 2002 년 북송 후 남한행 성공  
이복순(여)

1997 년 탈북 후 남한행 성공  
김동남 (남)



다음은 탈북자들을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목사/인권운동가들로서 지금은 이들을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2005년 5월 9일 체포

**윤요한 목사 (Phillip Jun Buck)**

1941년 1월 6일 북한 출생, 1989년 미국 시민권 취득, 중국 청다오시에 있다가 베이징을 거쳐 Yangi 로 가기 위해 세명의 미국인 목사와 함께 여행중 현지에서 탈북자들을 도왔다는 죄목으로 중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중 3인의 미국인 목사는 석방되었으나 윤요한 목사는 주요인물로 분류되어 1년 반동안 감금되었고 2005년 12월 30일에 재판을 받았다. 판결은 2006년에 2006년 8월 19일 그를 추방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그는 from the Train Foundation for “steadfast resistance to evil at great personal risk.” 2007년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했다. 그는 체포될 때까지 100명이 넘는 탈북자를 구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2003년 체포

스티븐 김(Steven Kim) 은 2003년 남한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을 베트남으로 경유하여 인도하려다가 중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압수된 돈을 이용하여 음식과 일상용품을 가져다가 탈북자들을 도왔다. 그의 도움으로 남한에 정착한탈북자들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2007년의 석방 이후 318 파트너라는 인도주의적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여 탈북자를 구조하고 북한의 지하교회와 선교사들을 지원한다. 그가 수감된 동안 스티브 김의 딸 리사 김(Lisa Kim)이 워싱턴 디씨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이 명단이 불려지는 동안 그 아버지 이름을 불렀고 그 항의하는 사진이 첫페이지에 나온 신문을 감옥에 있는 스티븐 김에게 전했을 때 그는 그가 잊혀지지 않은 것을 알았다.



2003년 7월 27일 체포

미국 시민권자인 박용화 목사는 탈북자를 도왔다는 죄목으로 2003년 7월 27일 붙잡혀 2004년 9월 8일 공식적으로 구속되고 2004년 10월 말 석방되었다.

중국 현지에서 2002년 4월 12일 체포

최봉일(54) 목사. 인도주의적 활동가로서 두명의 탈북자를 돕다가 체포되어 9년형을 언도받았으나 2004년 9월 22일 석방되었다.



기억할 점

중국에서 탈북여자의 인신매매를 취재중이던 미국기자 로라 령과 이은아가 2009년 3월 17일에 북한 경비병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북한에서 6개월 동안 감금된 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후 2009년 8월 5일에 풀려났다.

**대한민국 국적자:**

2007년 8월 내몽골

유상준(남)은 북한태생의 남한 국적자로서 9명의 탈북자의 몽골로의 탈출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2007년 11월에 풀려났다.

2003년 1월 18일 산둥 안타이 시에서 체포

최용훈(남)은 남한의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가. 2003년 5월 22일 5년형을 받고 30000 인민폐의 벌금형을 받음. 그는 수감기간에 고문과 매질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된 로 2006년 11월 29일에 조기석방되었다

2002년 8월 31일 북동 지역 창춘에서 체포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가 김희태가 8인의 탈북자와 체포되어 7년형을 받았으나 2004년 7월 15일에 석방되었음. 중국 공안에게 매를 맞았으나 이 명단을 통해서 그가 잊혀지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가 몰래 감옥에서 자유아시아 방송을 들었을 때 2003년 중국대사관앞에서 이명단을 읽는 시위를 하던 수잔 솔티여사가 그의 이름을 읽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었을때 힘과 격려를 얻었다고 한다.

2001년 12월 29일~30일 몽골 국경 근처에서 체포

천기원 목사, 인권활동가. 탈북자를 몽골에 보내려다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8월까지 감옥에서 220일을 보냈다.

**일본 시민권자**



2003년 8월 7일 상해에서 체포

후미야키 야마다, Society to Help Returnees to North Korea의 활동가로서 탈북자들을 돕다가 체포되었으나 일주일후 석방되었다.



타카유키 노구치(남, 32) 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의 인도주의적 활동가로서 세명의 일본 출생 탈북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일본 토카이 출생의 40대 여성, 일본 서부 지역 출생의 50대 남성, 히로시마 출생의 61세 최용. 노구치는 2004년 8월에 9개월간의 구금 끝에 풀려났다.

2002년 11월 호텔방에서 체포됨.

히로시 카토, humanitarian worker with Life Funds for North Korea Refugees and a citizen of Japan의 인도주의적 활동가. 탈북자를 도왔다는 죄로 중국의 호텔에서 체포되어 2002년 11월에 한주간 수감되었다.

**중국국적자**

탈북자를 돕다가 체포되어 2008년 4월에 복송

이기찬(42), 탈북 브로커, 탈북자들을 인도하여 국경에서 옌지 지역으로 가이드함. 그는 북한 보안요원에게 두만강 근처에서 체포되었다.

2003년 9월 27일 체포

이복자(여, 51)는 중국 국경 경찰에게 체포되어, 스티븐 김과의 구조활동의 일환으로 4인의 탈북자들에게 그녀의 옌지에 있는 교회로부터 창춘시까지 교통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년형을 받았다

이영옥(여, 46) 교회목사 부인으로서 스티븐 김의 구조활동의 일환으로 창춘에서 남부 중국의 광주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4명의 탈북자들에게 티켓을 사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2년형을 선고받았다. 두 여인 모두 스티븐 김과 함께 같은 감옥에서 11개월을 복역하였다.

2003년 5월 22일 체포

조선족인 박용호(남)는 3년형과 10000 인민폐 벌금형을 받았다.

2003년 1월 18일 산둥 옌타이시에서 체포됨

조선족인 김성만(중국식 발음은 진칭완)은 1년형과 1000 인민폐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형량을 살고 석방되었다.

이밖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중국인들이 탈북자를 돕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대한 정보나 수정을 원하시면  
다음으로 연락바랍니다.

수잔 솔티 전화: (1)703-534-4313

이메일: skswm@aol

오유나 이메일: younaoh@gmail.com

탈북자들을 위한 국제적 연대활동에  
참여해주십시오.

자유북한연합

<http://www.nkfreedom.org/>